



경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pd.org)  
 사무실: O2)3447-O750~1 팩스: O2)3447-O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이냐시오)  
 1 보좌신부 : 김경영(영주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김영희(비앙카)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율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 미사 전 30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평 일 ✉ 미사 전 15분
관면헌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소 식**

● **본당 전신자 성지순례 (추가접수)**

- \* 장소: 배론 성지(충북 제천)
- \* 일시: 10월 29일(주일)
- \* 출발시간: 기차팀: 오전 6시 40분 출발  
버스타팀: 오전 7시 출발
- \* 접수: 주일 미사 후 성전 로비
- \* 추가 접수 마감: 10월 8일(주일)까지
- \* 접수비: 1인당 1만원
- \* 참가대상: 본당 전신자 및 가족 등
- \* 준비물: 목주, 물, 개인 상비약, 편안한 복장(민소매, 반바지 등의 성지에 부적절한 복장은 삼갑니다.)

● **병자 영성체: 10월 12일(목) 10시 미사 후**

● **9월 예비신자 모집 마감(10월 15일 주일까지)**

평일반 (수요일)	오후 8시, 1층 지혜방
주일반 (일요일)	오전 9시 20분, 1층 프란치스코 홀

● **본당 구역미사 안내**

\* 본당 구역 활성화를 위해 구역미사를 실시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구역	장 소
10월 12일(목) 오후 8시	3구역	진흥 아파트 1동 602호
10월 26일(목) 오후 8시	5구역	청담동 17-19번지 5층

● **새신자 첫 고해성사 안내 (8월 27일 세례자에 해당)**

\* 일시: 10월 14일(토) 오후 8시, 2층 대성전

● **김정식과 함께하는 생활성가 미사**

\* 일시: 10월 20일(금) 오전 10시, 2층 대성전  
 ※ 한국 가톨릭 문화 연구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로 진행됩니다.

● **한낮의 음악회 'Salutem'(구원)-SM circle**

\* 국악 창, 피아노, 마림바로 연주하는 판소리 춘향가 중 속대머리, 사랑가, Maitre's dance 등

\* 일시: 10월 11일(수) 낮 12시 30분~, 2층 대성전

● **금요 콘서트 'La tour du monde'(세계여행)**

\* 매력적인 악기 색소폰의 음색으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의 곡을 들으며 음악으로 떠나는 즐거운 세계 여행

\* 일시: 10월 27일(금) 오후 8시, 2층 대성전

● **한국 가톨릭 문화 연구원 2017 하반기 콜로키움**

전체 주제: 길 위의 영성순례 문화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일 시	10월 14일(토) 오후 8시, 1층 프란치스코 홀
주 제	순례에 담긴 신학과 영성

● **2017년 청담동성당 청년 문화제**

\*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요한 2,4)의 주제로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지녀야 할 마음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10월 22일(주일)은 와인파티도 같이 합니다.  
 (\* 와인 기증 받습니다.)

\* 문의: 이 요안나 (010-9678-8786)

일시 & 장소	주 제
10월 15일(주일) 오후 8시 1층 프란치스코 홀	“종교가 과학이 되려는 시대에서의 신앙”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
10월 22일(주일) 오후 8시 1층 프란치스코 홀	“알맞은 협력자란?” (와인파티) 김경영 영주바오로 신부
11월 4일(토) 오후 8시 2층 대성전	성가대 & 챔버단 정기 공연 쌍투스 & 베네딕투스

● **2018년 상반기(1월~6월) 혼인성사 예약 안내**

▶ **타본당 신자 : 선착순 예약**

\* 일시: 2017년 10월 17일(화) 오전 9시~, 성당 사무실  
 \* 방법: 선착순 (교적 증명서, 예약금 준비)  
 \* 본당 신자분들은 계속해서 예약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제 36차 엠마오 동해레일바이크 해변여행**

\* 일시: 10월 21일(토) 오전 6시 40분, 성당마당 출발  
 \* 준비물: 간편신발, 복장, 간식, 엠마오 스카프, 회비(5만원)  
 \* 문의: 전 도미니카 (010-3297-6738)

**모 임**

- \* 10월 8일(주일): 청년분과
- \* 10월 9일(월): 성령 기도회(강사: 함옥숙 테레사)
- \* 10월 10일(화): 여성 Cu.
- \* 10월 11일(수): 여성 구반장
- \* 10월 12일(목): 해외 선교 후원회
- \* 10월 14일(금): 남성 Cu. / 제대회 / 예비신자 봉사회
- \* 10월 15일(토): 태교모임

성가번호 입 당: 405 예물준비: 218, 219 성 체: 167, 168, 161 파 견: 439

화 답 송

주 님 의 포 도 밭 은 이 스 라 엘 집 안 이 라 네



##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6)

### 【 책은 도끼다 】

프란츠 카프카는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때려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프카에게 독서는 우리의 한정되고 편협한 경험과 지식, 무지에 기초한 그릇된 믿음을 깨는 도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가 김이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잘못인 줄 몰랐고, 상대가 싫어할 줄 몰랐고, 괴로워하는 줄도 죽을 줄도 몰랐다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잘못이고 죄입니다.” 도끼처럼 무지를 일깨워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독서이며, 그래서 독서는 ‘배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광고인 박웅현은 자신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뜨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와 같은 존재가 책이라고 고백합니다. 소설가 김훈의 책이 자신의 감수성을 깨는 도끼이며, 도종환의 <담쟁이>라는 시도 도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신앙인을 회개로 이끄는 도끼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마태 3,10)

### 【 함께 책읽기 】

책은 혼자 읽는 것이지만 여럿이 함께 할 때 색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공독(共讀)’ 혹은 ‘독서모임’은 일종의 사회적 독서입니다. 독서공동체인 ‘송례문학당’이 펴낸 <이젠 함께 읽기다>(2014)에 보면 다음과 같이 독서와 공독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독서가 자신만으로 우주를 만드는 일이라면, 공독은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우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독서가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개인적인 활동이라면, 공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시야의 한계를 뛰어넘어 넓고 깊게 해석하게 해주는 공독의 효과는 다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름에 귀를 열고 들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허점을 깨닫고 여러 독법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상대화됨을 느낍니다.

최근에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작가 김이경이 소개하는 방법을 요약해본다.

- 1) 같은 시간과 공간에 모여서 각자 책을 읽는 아주 느슨한 형태.
- 2) 한 권의 책을 정해 발제자를 두고 토론하는 학구적인 모임.
- 3) 한 작가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그 작가의 작품을 두고 자유롭게 담소.
- 4) ‘러시아 소설 읽기’나 ‘동양 고전 읽기’ 같은 주제를 정해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듯 읽음.
- 5)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와서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
- 6) 전문가의 강의를 중심으로 하여 질의응답식 토론.
- 7) 낭독회를 겸한 독서모임.

8) SNS로 서로 독후 소감을 나누는 모임 등 그 외에도 여러 모양의 모임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양한 독서모임에 참여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나눔을 하다보면 상상도 못한 새로운 시각을 만나면서 충격과 깨우침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당 공동체에도 교회서적을 함께 읽는 독서모임이 많이 생겨나 신앙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신앙이 성숙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